

직장에서 인생의 스승, 멘토를 만나다

멘토제도는 조직이나 사회에서 경험이 많은 사람(멘토)이 그렇지 않은 사람(멘티)에게 일정기간 1대1로 접촉하며 관련 기술과 업무노하우는 물론 개인적 경험까지 전해 경쟁력을 갖춘 차세대 리더로 키우는 활동을 말한다. 두려움과 설레임으로 회사에 첫발을 내딛은 신입사원들에게 빠른 적응과 업무스킬 향상을 위해 멘토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벤처기업이 늘어나고 있다.

예스컴

Be the Champions

CRM 기반의 컨택센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스컴의 멘토제도 이름은 'Be the Champions'이다. 'Be the Champions'는 IT 기술 인력들의 스킬 향상을 위해 고안된 프로그램으로 올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예스컴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스킬을 총 6개 군으로 나누고 각 기술영역별로 챔피언을 뽑아서 이들 챔피언이 다른 직원들의 스킬향상을 돕는 제도이다. 예스컴은 올 초 6명의 챔피언을 뽑아서 상금과 트로피를 전달하고, 현재 이 챔피언들이 내부 스터디 및 외부 교육기관 활용 등을 통해, 다른 직원들의 스킬향상을 돕고 있다. 예스컴은 'Be the Champions'를 통해 직원들이 보다 높은 스킬을 빠른 시간에 습득할 것으로 기대한다.

유비케어

굿맨

의료정보전문기업 유비케어에는 '굿맨'이라는 멘토제도가 있다. 신입사원이 입사를 하면 선배사원이 1대1로 파트너를 맺고 속지해야 할 프로그램 등의 회사업무와 회사문화 등을 자세하게 교육하여 유비케어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해주는 프로그램이다. 신입사원이 실무를 진행할 때 어려운 점이나 애로사항을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도 굿맨 파트너다. 유비케어에는 또 포인트 제도가 있어 우수사원이나 팀평가 등을 통해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쌓인 포인트만큼 법인카드를 쓸 수 있다. 굿맨 프로그램 진행 중에도 두 사람이 함께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일정한 포인트를 지급한다.

한국디엔에스

新조직 관리기법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인 한국디엔에스도 新조직관리기법으로, 신입사원을 경험이 많은 모범 선배사원에게 맡겨 조직적응력과 업무능력을 높이고 우수 인재가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개별관리를 하는 멘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한국디엔에스에서 실시하고 있는 멘토제도는 6개월 동안 이루어지며 직무기술 습득과 GWP(Great Work Place)에 중점을 두고 있다. 멘토제도를 실시한 결과 신입사원의 생산성이 높아지고 이직률이 현저히 줄어들었으며 회사 적응속도도 빨라졌다. 선배사원 또한 멘토제도를 통해 리더십을 쌓을 수 있게 되었다.

다음

자율의견 교환제도

다음은 '멘토'라는 제도를 구체적으로 공식선포해 실행하고 있지는 않다. '멘토'를 제도화하여 상명하달식으로 시행하기보다는 그 내용을 흡수한 자발적이고 수평적인 기업문화를 유지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팀이나 셀의 주니어가 쉽게 기업문화를 익히고 기존 사원들과 원활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멘토 제도의 근본취지를 최대한 수렴하기 위해, 사원들 간의 자율적 의견교환을 통한 업무 진행을 원칙으로 철저히 지키고 있다. 또한 이 과정을 통해 상호이해를 증진함은 물론 주니어가 업무를 숙지하고 자신의 의견을 스스럼없이 개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